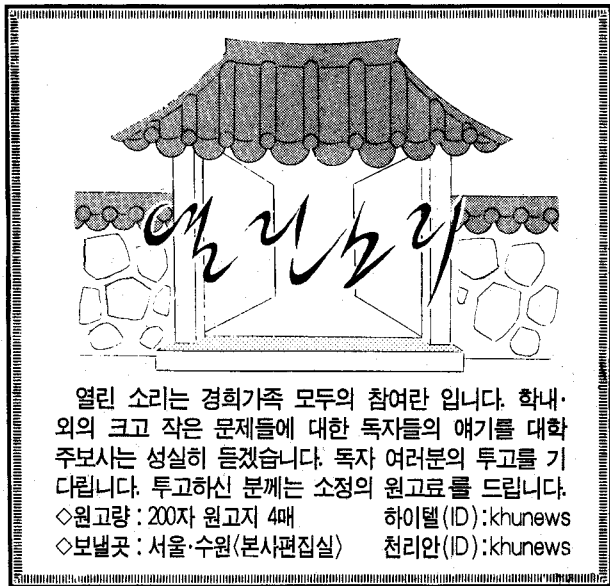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 주보시는 성실히 들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khnews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khnews

값싼 근로장학금 실효위해 인상돼야

이제 이름도 사라져 버린 장학금에, '모범C장학'이란 것이 있었다. 다른 말로는 '근로 장학'이라 불렀는데, 보통 시간당 2천5백원씩 한달에 40시간 10만원, 3달간 총 30만원을 주는 아르바이트였다.

나도 2, 3학년 시절 4학기 동안이나 도서관에서 책정리와 가방보관등 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쉽게 돈을 벌기 보다 학교에서 짬짬히 딸출려 일 하면서 용돈을 마련하는 기쁨이 있었다.

'딸출리지 않고, 쉽게 대가를 얻으려는 의식'이 요즘 온통 우리 사회에 가득하다. 사기를 치는 이유도, 사기꾼에게 속는 것도, 정당한 공무하여 정당한 학점을 받으려 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도, 논가림식으로 얼렁뚱땅 건축을 하는 것도, 그러나 딸출려 일하는 자가 바보, 썩맥 취급을 당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아르바이트도, 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과외지도를 주로 생각하는 요즘, 사실 근로 아르바이트 제도는 정당한 대가를 가르쳐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후배가 있어서 요즘은 얼마나 주느냐고 물

어 보았다. 후배의 말로는 야간 순찰과 같이 위험하고 힘든 아르바이트는 시간당 아르바이트비가 좀 올랐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8년전과 같은 시간당 2천5백원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1학년이던 89년에 학교 앞 카페나,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당 9백원이거나, 1천원정도였다. 지금은 1천8백, 2천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등록금도 89년에는 90만원 내외였지만, 지금은 2백만원 내외이다(경영학부의 경우). 거의 모든 물가가 2배가량 올랐는데도, 아직도 근로 아르바이트비는 2천5백원이라니...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에 묶여가라고 했던 말인가? 2천5백원은 내가 학교를 들어오기 몇해 전에도 2천5백원이었다는 얘기도 전해로부터 들었다. 사실 내가 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에도 '장학제도의 일환으로 주는 것인데, 시간당 2천5백원은 좀 적다'면서 좀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교직원들 통해서 듣기도 했었다. 이를 볼 때, 당시 한달에 10만원도 그리 큰 돈은 아니었다.) 학교에서의 근로 아르바이트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딸출린 노동의 의미도 배우게 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실제적인 경제문제도 돕는 장학제도의 일환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선심은 선심대로 쓰며 단순작업에 값싼 시간제 노동력을 이용하는 변질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요즘 물가에 3달동안 일해서 겨우 30만원을 받아 가지고서는 등록금은 커녕 용돈도 할 수 없다.

근로 아르바이트 제도가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비의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거의 10년간이나 아르바이트비가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얘기다.

박 경 규

(경영 석사 4기)

한총련 혁신운동

반성과 사회 자세 필요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강을 하고 새로운 만남으로 가득한 통일광장에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지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방학중에 잘 지냈느냐?' '아직도 잡지 않았냐?' 우스개 소리로 '얼마짜리냐?' (현상금)이됩니다. 웃음속에 만나는 학우들이지만 웬지 한쪽 가슴이 허전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총련'인 것입니다.

1백만 청춘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한총련 출범식 이후 한총련의 모든 것이 이적, 친북으로 김영삼정권에 의해 낙인 찍히게 되었을 때 학우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방종 농활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은 저의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

그리고 검찰의 탈퇴강요가 계속됐습니다. 탈퇴강요를 하면서 하지않는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으로 구속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청춘의 꿈을 안고 올라왔던 대학, 대학에 합격한 아들을 먼곳으로 보내며 자랑스

러움에 이내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 언제나 동기로서 격려해 주던 학우들.

저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던 것입니다. 수배의 길을 택했습니다. 잠을 써서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정들었던 교정을 나올 때는 눈물이 교차했습니다. 한총련이 시킨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습니.

학우여러분! 학생운동의 모든 것은 학우들로부터 나옵니다. 지금 아무리 큰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김영삼정권과 검찰이 아니라 수많은 학우들입니다. 학생운동의 혁신을 김영삼정권에게 맡길수는 없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권은 학생운동의 변화와 혁신이 아니라 와해가 목적인 것입니다. 탈퇴는 그러한 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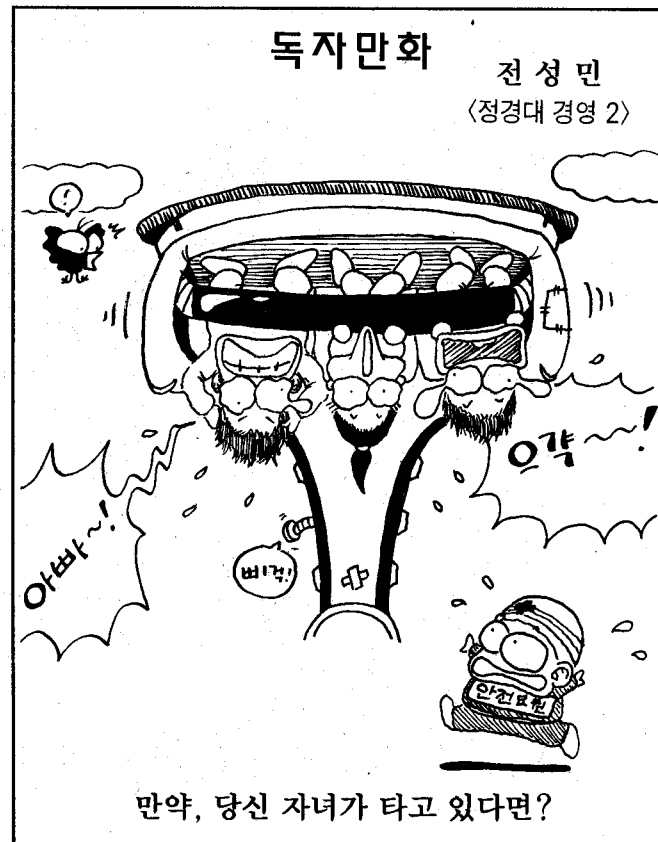
삼정권의 음모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4.19, 5.18, 87년 6월 항쟁의 거리에서 학생운동은 4천만 국민의 희망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물어도 학생운동을 없애야 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해결의 길은 반성과 사회, 학우들의 지지속에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금 반성과 혁신의 자세로 학우들의 생활 속에서 한총련의 모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처음 학생회장에게 출마할 때 보내주셨던 격려와 지지, 그 마음으로 한총련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보 석

(토목 4)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에 경희의 미래는 밝습니다. 출연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탁자명단은 접수순입니다.

(97.6.5~97.9.19)

△이도훈(공과대 토목공학과 교수) 2백만원
△안효빈(한화그룹비서실, '93. 사회과학대 행정학 졸) 30만원
△안복현(삼성항공 대표이사, '71. 경영학 졸) 50만원
△이만섭(치의예과 교수) 2백만원
△황성중(대의협력실) 1백만원
△뉴욕동문회(회장: 최재홍) US\$1천5백
△인터넷교육 수익금(정보센터) 21만9백원
△김영례(평화복지대학원) 10만원
△경원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60기 2백만원
△전세남(총무과) 30만원
△안천수(총무과) 30만원
△이건훈(총무과) 30만원
△김영옥(총무과) 20만원
△이진옥(총무과) 20만원
△김순연(총무과) 20만원
△김정자(총무과) 20만원
△이순자(총무과) 20만원
△지금자(총무과) 20만원
△유삼심(총무과) 20만원
△류문주(총무과) 20만원
△권선실(총무과) 20만원
△최옥자(총무과) 20만원
△김기연(총무과) 20만원
△안금환(총무과) 20만원

△이정자(총무과) 20만원
△오옥영(총무과) 20만원
△이영석(총무과) 20만원
△박숙여(총무과) 20만원
△도서관 관리인 일동(오옥영, 박숙여, 김윤택, 장을준, 박지용, 이상호, 백성구, 정윤중, 이도희) 10만원
▲경희사랑저금통 기탁
△윤백중(경희초등학교 교장) 3만7천8백90원
△박기서(문리대 사학과 교수) 4만6천3백원
△최법석(자연과학대 화학과 교수) 6만4천9백원
△조호호(의대 의학과교수, 학생처장, 7차분) 7만5천4백60원
△관리과 6만1천9백30원
△조민자(경희초등학교 교사) 8만2천60원
△차일용(경희초등학교 교사) 6만7천5백20원
△이의영(경희초등학교 교장, 2차분) 7만8천6백90원
△손백현(대의협력실 과장, 2차분) 1만4천4백20원
△공우석(문리대 지리학과 교수) 4만8백20원
△정종고(사회교육원 과장) 4만8천3백60원
△장현수(일양토건 대표, 총동문회 부회장) 13만2천8백원
△서인목(수원캠퍼스 사무처 관리과) 4만9천4백20원
△김준현(기획조정실, 2차분) 3만8천3백80원

朔風

십시일반 미덕의 부재

모처럼 있는 나홀로만의 연휴를 즐기고 난 뒤, 제일 처음 우리를 맞은 것은 한 소년가장의 자살 소식이였다.

신문을 포함한 언론에서 연일 대 통령선거 이야기에 추석 불황, 또 그 불황중에도 끊이지 않은 돈 절벽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추석 연휴라고 TV에서는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연예인들이 나와 즐겁게 웃고 게임을 하는 동안 한 소년은 그 얼마되지도 않는 기간의 삶을 마감할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죽음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홀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보내지는 것이 두려워 썩어가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며칠을 지낸 소년의 이야

기를 듣고 경악을 한 적이 있다.

또 몇 달전 방송되었던 (추석연휴 때) 방송되었지만 '일곱개의 손가락'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가슴 울

해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단지 1회적인 관심과 동정을 살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득하기만 하다.

물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한 것이 전부 우리를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강제' 당하면서 우리는 고향의 초가집과 메뚜기, 개똥벌레를 잃어버린 것 외에 서로를 보살피고 돕는 '십시일반(十匙一飯)'

의 미덕을, 나 이전에 공동체를 생 각하는 이타심을 차압당한 채, 정 권, 권력, 부, 명예라는 부차적인 것

에 모든 것을 걸고 살기를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날도 보기 힘들 정도로 뻥뻥히 서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바로 옆의 동료가 선배, 후배가 경쟁자가 되는 직장, 바로 이웃이 언제 나를 해코지할지 불안해 할 정도로 범죄가 판치는 이 땅에 살면서 이웃간의 경조사를 챙기고,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내 일처럼 돌봐준다는 것은 어쩌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신문과 방송을 열심히 보면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지를 예측하여 줄을 잘서고, 박찬호의 연봉이나 승수, 방어율, 선동열의 세 이브포인트와 연봉, 보너스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우

리에게 중요할지 모른다. 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담배 피는 고등학생을 나무라다 뽀이라도 한 대 때리면 전과자가 될 수 있고, 심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저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공간에서 TV, 라디오, 좀 여유가 있다면 컴퓨터를 즐기는 것이, 그러다 답답해지면 '그래 옛날이 좋았어'라며 술이나 한 잔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임을, 하지만, 정말로 하지만 말이다.

그 술잔 한잔 이후에 우리는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말을 할 것이다.

이건 사람이 사는게 아니야 라고.

(落經)

독자의 시

밤 12시, 700번 좌석버스

홍 성 구
(국문 2)

밤12시
700번 좌석 버스가 영등포의 정류소에 와, 섰다.
시계를 문 높은 카우보이처럼 배기통은 툭툭거리고
신념에 찬 목소리가 성경 말씀을 읽듯 우리를 안내했다
"이번 정류장은..."

나는 밤 12시
좌석 버스의 맨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을 바라다본다
그때
거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람들의 뒤늦은 커가길을 훑쳐보

며
종이장처럼 가벼워지는 어떤 행인을 책망하며 쫓는다
종종 주민등록증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이곳의 삶은
읽다 만 잡지가 되어 사람들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진단
누구라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팔라이는 저 비매물

그러나 조심할 점은
그 누구도 쫓겨진 잡지의 한 귀퉁이를 찾아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호응해야 할 부분은
잡지의 표지나 광고일 뿐
변거로이 책장을 넘기며 head-line news를 훑어볼 필요는
없다

지나간 불륜을 얘기하는 가십 거리이면 모를까
상대방의 표제는 곧 나의 두통 거리이다-점점 인적은 드물
어지고

나는 가로등이 단정지어 놓은 안전 통행로를 스쳐보다가
구두의 뒤축을 닦게 하는, 평탄하지 않은 보도블럭을 생각해
낸다

저마다 숨겨져 디딜 곳을 찾아야 하는 보도블럭 옆에는
황단 보도가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차와 행인의 통행을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정지선이 그어져
있다

(너와 나의 충돌과 전복을 막는 안전 거리 너와 나의 질서있
는 통과를 위한 벌금을 물지않기 위한, 그 거리)

버스가 파란불이 켜져 안전 거리 표시선 가까이에서 멈춰섰다
밤 12시 30분

버스가 집 앞의 정류소에 도착했다
이번 정류소에 내리는 승객은 나 혼자 뿐이었다
700번 좌석 버스가 부르릉거리며 정류소를 출발한다

새롭게 찾은 7만동문, 경희의 밝은 미래를 예감합니다

경희가 걸어온 길을 이어, 앞으로 경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예감케 하는 경희 가족찾기 캠페인의 성공은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경희 가족을 찾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경희의 개교 50주년과 격동의 21세기를 앞두고 학교는 경희의 발전을 통하여 경희가족에게 간접적인 성취감을 느끼도록 할 것이며, 동문들의 자긍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자랑스런 경희대학 만들기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희발전기금 참여 안내

■기부형태: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타자산(부동산, 기타), 도서자료, 실험실습 기자재 등
■납부방법: 일시 또는 월납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별(예: 직장/지역동문회 등)
· 각 학과/대학(원)별 특정목적기부금으로 지정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무동장입금(예금주: 경희대학교)

국민은행 010-01-0618-642 한일은행 070-084146-13-101
서울은행 17301-2710209 외환은행 131-13-10336-6
농협 031-01-396711 평화은행 044-01-001-286
우체국 012336-0025556 경희사랑저금통기금(서울은행) 17308-9505323

■경희발전기금 납부방법, 각종자료 등 문의사항은 경희대학교 개교 50주년기념사업회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실/개교 50주년기념사업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TEL: 961-0931/2 FAX: 961-0906

다같이 함께 참여합시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9학기 등록금, 모교발전의 튼튼한 토대입니다.

◆장학금 되돌려 주기 운동

영원히 변치 않는 교적,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되돌려 줍시다.

여러분의 정성과 후원으로 마련되는 경희발전기금, 이렇게 쓰입니다

◆대강당 원공

◆개교50주년기념과 건립기금 조성

경희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1999년 개교 50주년기념사업 기금을 위한 범 경희인 후원운동을 전개합니다.

◆21세기 특별목적사업기금 조성

- 교육시설 확충(특수교육공간 건설 및 문화공간 확충)
- 학술연구/첨단과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우수교원 및 연구원 확충
- 종합 학술 정보 체계 수립/도서관 장서 구입
- 문화예술/창작/체육진흥기금
- 장학/각종 고시육성 후원기금